

지역 소식통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5월 31일까지 사용 마감

정읍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시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남은 금액이 시로 환수되기 전 서둘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 1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읍시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추진한 정책이다. 자금이 시중에 돌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한을 넘겨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해 정읍시로 모두 환수 조치된다. 아직 남은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잔액 조회나 사용처 안내 등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3)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축산재해보험

최대 300만원 가입 지원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 농가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자연재해나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이 보험은 소와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은 물론 축사 시설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폭염이나 태풍, 호우 같은 각종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지원 한도는 한 농가나 법인당 최대 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국비 200만 원에 도비 40만원, 시비 60만 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보조한다. 농가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지원

## 신속한 치료 위한 병원간 이송 지연 최소화... EMS 등 민간 구급차 이송비 지원

부안군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응급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병원간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부안군에서 전북권, 수도권 등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구급차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환자 기준은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 상 분류 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증빙서류(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이송처치료 영수증)를 갖추어 보건소에 접수하면 되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 580-380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이재명과 함께 중단없는 고창 발전 이루자”

##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지방선거 출정식... 본격 유세활동 돌입

### “군민과 함께 고창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재선 향한 첫 걸음

6·3 지방선거 전북 고창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번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오전 9시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첫 유세현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박우정·고석원·안재식 상임선대위원장, 김원봉 공동선대위원장,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고창 지역 군의원 후보들(박성만, 이경신, 김승철, 박종열, 고정호, 강상원, 임정호, 김삼용, 조규철, 최선례(비례대표), 최은서(비례대표))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더 큰 고창! 시작도 심덕섭! 완성도 심덕섭!”, “군민의 꿈과 심덕섭의 꿈이 만나 고창의 미래를 만듭니다.”, “확실한 변화! 검증된 능력!

실천하는 힘은 심덕섭”, “열정의 4년 달라지는 고창”, “성과로 보답하는 심덕섭”라는 피켓과 현수막이 출정식 유세 분위기를 돋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고창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다”며 “고창군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고창 대도약의 적임자를 뽑아달라”고 심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박우정 상임선대위원장(민선 6기 고창군수)은 “저의 평생 소원인 노을대교 개통과 서해안철도 연결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 심덕섭 후보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속도감을 더해 꿈을 실현할 군수는 오직 심덕섭 뿐이다”고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첫 유세에

서 “지난 4년 동안 가슴속에 오롯이 고창발전에 대한 열정을 품고 힘 없이 달려왔다”며 “분야별 성과를 내고 발전시키는데 도와준 군민과 향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큰절을 올렸다.

이어 그는 “민선 9기는 새로운 고창 미래 100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고창을 서해안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유가 시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고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을 조성해 ‘전력에너지 경제 도시’, ‘농어촌기본소득 선도도시’, ‘출산부터 노후까지 완벽히 책임있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부강한 고창을 위한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협업과 융합의 시대에 경제와 농업, 문화관광 등 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고창 르네상스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14년 연속 수상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 고창군, 귀농귀촌 도시 부문 브랜드 대상

### 작년 1360명 귀농귀촌... 예비 귀농인들의 '꿈의 도시'로 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14년 연속 수상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고창군은 전지역 생활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의 특화된 기술과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꿈의 도시'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1035세대 1360명이 고창으로 귀농귀촌해 지역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실은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온 노력의 결과다.

고창군은 예비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과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농창업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 이자의 1%를 3년간(연 최대 300만원) 군비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있다.

또한 9년째 운영 중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들이 최장 9개월간 직접 거주하며 영농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정원관리사 교육 등과 같은 맞춤형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새내기 농업학교와 멘토 컨설팅 등 내실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고 마을 환영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허브치유교실, 음료베리에이션 과정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 세계 벌의 날 기념, 야생벌 보호·생태환경 복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지난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군청 1층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ESG 지정기부사업인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는 세계 벌의 날의 의미와 야생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및 답례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부안군 대표 답례품 전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안내가 진행됐으며,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찰용 벌통도 운영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꿀벌의 움직임과 벌집 내부 활동을 관찰할 수 있게 구성해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ESG 사업의 일환으로 야생벌 보호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번산면 누에타운 일원에는 꽃양귀비를 활용한 비플래닛(Bee Planet) 정원을 조성 중이며, 야생벌 서식시설인 '비호텔(Bee Hotel)' 설치 등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부스를 통해 꿀벌과 야생벌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

### 내달부터 농지 이용실태 조사 본격화... 농지법 위반 사례여부 현장 확인 강화

정읍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1996년 이후 사들인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밭이나 논을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유 관계 확인을 비롯해 실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장기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 단계별로 시행한다.

먼저 6월부터 7월까지의 농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유 관계와 실경작, 휴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심층조사를 거친다.

기본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와 법령상 필수 조사 대상을 현장 방문해 실제 경작 상황과 시설물의 운영 용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각 읍·면·동 소속 담당 공무원과 신규 채용한 조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와 항공 사진 등을 활용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소유하거나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 의무 부과 등 단호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